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ditional Motives in Upper-Class Houses of the Chosun Dynasty

최지연, 박영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Choi Ji-yeon, Park Young-soon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

● Keywords: Korean Traditional Motives, Space, Mean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현대건축은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체성이 있는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즉,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할수록 문화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회전반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통건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한국문양은 한국인의 전통적 미의식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양과는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전통을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문양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문양은 감성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공간적 특색에 따라 다른 문양을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의미성과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전통주택에서의 다양한 공간 및 용도에 따라 문양은 어떠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화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공간에 따른 상징성을 파악함으로써, 실내 건축 계획시에 전통문양의 의미성 및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양이 사용된 주택부위, 전통주택의 부위별 문양, 상징성에 의한 문양 등을 분석하였다.

1-2. 조사대상

조사대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통주택을 선정하였다. 문양의 수집을 위해서 주택의 대상공간 및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했고, 스케치를 병행하였다. 현장 조사한 자료와 문헌 조사한 자료는 총 30체의 조선시대 상류주택에 사용된 문양으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양자료의 종류와 상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분류된 조선시대의 문양 종류와 상징성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2. 주택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

2-1. 문양이 사용된 주택부위

문양이 사용된 전통주택의 부위를 건축구성요소, 실내구성요소, 장식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건축구성요소 중 기단, 초석에서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부벽체와 담장에서도 1채를 제외하고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붕에서는 가장 많은 문양이 나타났는데, 망와, '용마루 끝, 암막새, 수막새들에 문양이 나타났고, 대문은 이를 지탱하는 상단 가로대 부분과 빗장 든테에 문양이 사용되었다.

실내구성요소에서는 바닥, 기둥, 천장 등에는 문양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천장의 마루대공부분, 창호 아래의 머름간에서는 문양이 간혹 나타났다. 부엌에서는 광창부분, 창호의 살짜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나타났으며, 난간에서는 궁창, 하엽부분,

난간동자에 문양이 자주 사용되었다.

장식요소 중 물확은 현재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단지 1채에서만 물확에 문양이 사용되었다. 편액은 주로 테두리에서만 문양이 나타났고, 주련은 많은 주택에서 문양이 사용되었다.

다음 [표 1]에 주택부위별 문양의 사용의 유무를 정리하였다.

[표 1] 주택부위별 문양의 사용 유무

주택부위		문양의 유무
건축 구성요소	기단	×
	초석	×
	벽체	○
	지붕	○
	처마	○
	굴뚝	×
실내 구성요소	기둥	×
	바닥	×
	천장	○
	창호	○
	내부벽체	○
장식요소	난간	○
	물확	○
	편액	○
	주련	○

2-2. 전통주택 각 부위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전통주택공간의 각 부위에 따라 사용된 문양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건축구성요소 중 외부벽체는 길(吉)자, 쌍희(喜)자가 나타났고, 처마에서는 곡두문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 공포에서는 덩굴문이 나타났고, 지붕에서는 꽃문, 희(喜)자, 명문, 용, 곡두, 태극, 주작, 불로초, 귀면문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담장지붕의 용마루에는 빗살문이 대부분 나타났고, 대문 상단 가로대 부분에서는 태극문, 등근문이 나타났고, 부엌 문에는 태극문, 등근문, 기하문양이 자주 나타났다.

실내구성요소 중 천장의 마루대공에서는 당초문, 명문이 간혹 나타났다. 창호 아래의 머름간에는 여의두문이 간혹 사용되었고, 창호에는 아자, 용자, 만자(완자) 등의 글자와 관련된 살대문양이 나타났다. 난간에서는 동창부분에서 아자문, 죽대살문, 변형된 모양의 여의두문 등이 자주 사용되었고, 난간동자부분에서는 박쥐문, 마름문 등이 나타났으며, 하엽에서도 박쥐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장식요소 중 물확에는 귀갑문이 나타났고, 편액은 테두리부분에서 봉황의 얼굴문양과 덩굴문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주련에서는 명문이 나타났다.

다음 [표 2]에 전통주택의 각 부위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전통주택 각 부위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사용된 문양
건축구성 요소	기단	
	초석	
	벽체	길(吉)자 / 회(喜)자
	담장	길(吉)자
	지붕	학 / 꽃 / 회(喜)자 / 명문 / 용 / 곡두 / 태극 / 주작 / 불로초 / 귀면문
	대문	태극문 / 등근문
실내구성 요소	골짝	
	천장	당초문 / 등근문 / 마름문
	바닥	
	기둥	
장식요소	창호	아자 / 용자 / 만자 / 꽃문 / 빗살문 / 등근문 / 마름문 / 태극문
	난간	박쥐문 / 여의두 / 아자문 / 쯤대살문 / 마름문
	물확	귀갑문
	편액	봉황문 / 덩굴문
	주련	명문

2.3. 문양의 상징성에 의한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전통주택에서 사용된 문양들은 그 상징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분류된 5가지 유형은 벽사·수호를 위한 문양,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 종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 장식을 위한 문양이었다. 다음 [표 3] 은 전통건축에 사용된 문양을 상징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3] 전통주택문양의 상징성에 의한 분류

구분	문양
벽사	용, 거북이, 주작, 귀면
길상	박쥐, 길(吉)자, 여의두
장수	학, 구름, 귀갑, 불로초
종교	태극, 명문, 덩굴문, 회(喜)자, 만(卍)자
장식	마름, 등근, 빗살, 꽃문

벽사·수호를 상징하는 문양에서 벽사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2681).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 중 여기에 속하는 문양은 용, 거북, 주작, 귀면문 등이 있었다. 용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주는 벽사진경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붕에서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거북이는 북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으로 수호의 의미가 강조되는 문양이었고, 장수를 상징하였는데, 주택에서는 대문빗장에서 사용되었다. 주작은 사신문 중 남쪽을 맡은 수호신이었고, 지붕에서만 나타났고, 남향의 주택에 수호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귀면문은 도깨비의 형상을 상상하여 의인화시킨 형상으로 이것은 마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귀면문양도 지붕에서만 나타났는데, 지붕에 사용된 대부분의 문양들은 모두가 주택을 모든 방위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길상이란 장수나 행복 따위의 좋은 일을 상징함을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933). 전통주택에서 사용된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은 길(吉), 그 외 아(亞)자, 만(卍)자 형태의 글자문양들, 박쥐문, 여의두문이 사용되었다. 길(吉)자는 한자의 의미가 길함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창호, 벽체, 담장, 지붕에서 사용되어 부위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다. 그 외 아(亞)자, 만(卍)자 글자형태의 길상 문양은 주로 창호와 난간에서 나타났다. 박쥐문과 여의두문양은 남성공간인 사랑채 누마루의 난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박쥐는 행복을 상징하고, 여의두는 보살화문에서 본뜬 것으로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전통주택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은 학, 구름, 거북, 불로초 등이 나타났고, 이것은 모두 십장생의 요소들이다. 학은 새들의 우두머리로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선비의 기상을 뜻하기도 하는 문양으로 지붕에서만 나타났다. 불로초는 불로장생을 의미하고, 지붕에서만 나타났다. 구름은 자연의 영원한 존재임으로 장수를 의미하고, 신비로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름문양, 거북등의 모양을 한 쇠장석에서 나타나 장식적인 모티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은 태극, 명문, 회자, 만자, 덩굴 문양 등이었다. 태극은 대문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것은 우주만물구성의 근본을 뜻하는 것으로 음양오행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명문이라는 것은 좋은 글귀를 음각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교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기와, 천장의 마룻대공, 주련에서 나타났으며, 교육적인 효과가 컸다. 덩굴문양은 연면(延綿)의 뜻이 있었고, 신성한 건물을 뜻하는 의미가 있었다. 전통주택에서 덩굴문양은 공포, 천장의 마룻대공, 편액의 지붕을 받치는 부분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 건물은 신이 사는 건물 즉, 신성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이것은 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喜)자문은 원래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광의로 해석되어 천지와 음양의 화합을 의미하고, 지붕과 난간에서만 나타났고, 음양오행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양이다. 만(卍)자는 무한 장구하다는 뜻을 내포하여 불교적인 의미가 강한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창호와 쇠장석에서 사용되었다.

뜻은 없으나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통건축의 문양으로는 마름문, 등근문, 빗살문, 꽃문 등이 있었다. 마름문은 문양이 사용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의미 없이 사용되었고, 등근문은 처마끝이나 광창에서 미팅한 표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빗살문은 주로 용마루의 기와장에 사용되었고, 꽃문도 다양한 장소에서 꽃 고유의 미적 효과로 인해서 장식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공간의 의미성과 관계 속에서 상징성을 파악하여, 공간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문양기본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1) 본 연구에서는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30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통주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 차별, 지역별 문양사용에 대한 차이도 확연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 종류의 상징성을 유형화하는 단계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현대에 활용 할 수 있는 보다 실용성 있는 자료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3) 본 연구에서는 문양의 수집과정에서 상세한 문양의 수록이 미흡하였으나, 전통문양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사실적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DB화 하는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